

이태훈 논술

{유형 분석 → 기출 분석 → how to write}

성균관대 CORE



[개요] 성균관대 언어논술



시험지 구성

- 1. 100분 / 3문항 / 분량 무제한
- 2. 문제 1의 이항대립 구도가 문제 2, 3에 적용됨
- 3. 문제 유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문제 1 (40점)	입장 분류
문제 2 (40점)	도표
문제 3 (20점)	자기 견해

특징

- 1. 제시문 길이가 길고, 분량이 무제한 → 시간 압박이 크다
- 2. 독해력 및 개념 이해 중요
- 3. 등급제 채점 : 채점 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 4. 분량 무제한 → **제시문 기반 구체화** 가능성 무한대

최근 경향

- 1. 22년부터 각 제시문 2000자 내외&4제시문 구도 뚜렷해짐
- 2. 도표 어려워지는 추세
- 3. 시간 압박이 강해지는 중
- 4. 25년 2교시 어렵게 출제됨 → 오늘 수업

주제 예시

대논점	이항대립
세계화	찬성 vs 반대
삶의 가치 판단 기준	자유주의 vs 공동체주의
인간 사회 운용 원칙	의무론 vs 공리주의
불평등	긍정 vs 부정(기능 vs 갈등)
사회적 상호 작용	협력 vs 경쟁

기출문제 성균관대 2025 2교시

문제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4>는 예술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40점)

문제 2. <자료 1~3>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분석을 활용하여 [문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지지하는 논리를 제시하시오. (40점)

<자료 1>

아래 <자료 1-1>은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진행한 두 예술 교육 프로그램¹⁾에 대한 설명이다. <자료 1-2>와 <자료 1-3>은 각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이루어진 자기 평가와 전문가 평가 결과²⁾를 보여준다.

주1) 각 프로그램 당 50명의 어린이들이 무작위로 배정되었음. 두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개인 및 사회적 특성에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가정함. 두 프로그램은 동일한 시간 동안 진행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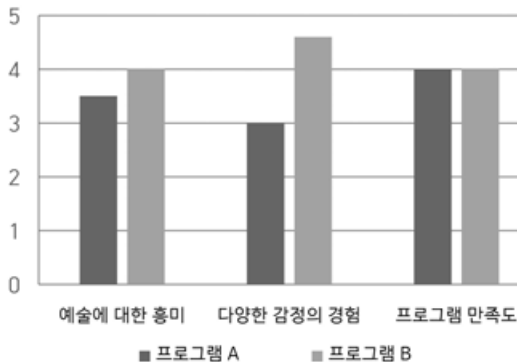
주2) <자료 1-2>의 자기 평가와 <자료 1-3>의 전문가 평가에서 각 항목은 5점 만점으로 평가됨(0점: 매우 낮음, 5점: 매우 높음).

<자료 1-1> 프로그램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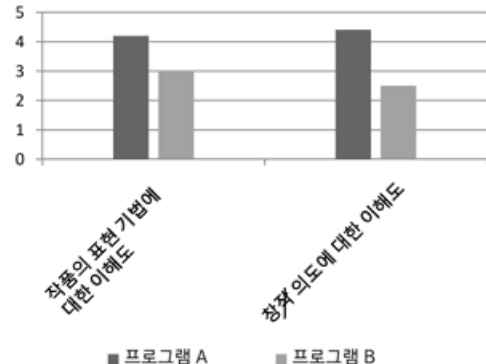
대상 예술 작품: 이중섭의 <소> 연작	
프로그램 A	프로그램 B
도슨트(docent) ³⁾ 가 이중섭의 생애와 창작 당시의 역사적 맥락, 독특한 색채 사용과 표현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 후, 어린이들과 작품의 의미와 가치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	이중섭의 <소> 연작을 관객 참여형 미디어 아트로 변환하여, 어린이들이 작품의 구성 요소, 색상 등을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작품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경험을 하는 프로그램

주3) 미술관에서 방문객들에게 작품과 전시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자.

<자료 1-2> 프로그램 참가자 자기 평가 평균



<자료 1-3>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전문가 평가 평균



<자료 2>

박경리 작가의 <토지>는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개인의 운명과 역사의 조류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폭넓게 조망한 작품이다. 한 대학에 개설된 <한국문학의 이해> 수업에서 학생들이 이 작품을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였다. 아래의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자료⁴⁾와 표는 학생들의 전공에 따라 감상문에서 많이 사용된 핵심 단어와 단어별 출현 빈도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전공 A>



핵심 단어	출현 비율
갈등	32%
자아	28%
무의식	16%
정체성	14%
기타	10%

<전공 B>



핵심 단어	출현 비율
경제	30%
계층	26%
착취	20%
토지	16%
기타	8%

<전공 C>



핵심 단어	출현 비율
문학적	24%
상징	21%
구조	20%
주제	18%
기타	17%

주4) 왼쪽에 제시된 워드 클라우드에서 글자 크기는 해당 단어의 출현 비율에 정비례함.

<자료 3>

아래 그래프는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 연구 결과이다. 모든 참가자에게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 지역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에 대한 지지도,⁵⁾ 참가자의 현재 정서 상태,⁶⁾ 자녀 유무를 물었다. 이후 참가자들을 A, B, C 세 조건에 각각 400명씩 무작위로 배정하고,⁷⁾ 각 조건의 참가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각기 다른 방법으로 어린이의 얼굴 사진 작품을 보여주었다. 그런 다음, 전쟁 지역 인도적 지원 정책 지지도와 현재 느끼는 정서 상태를 다시 물었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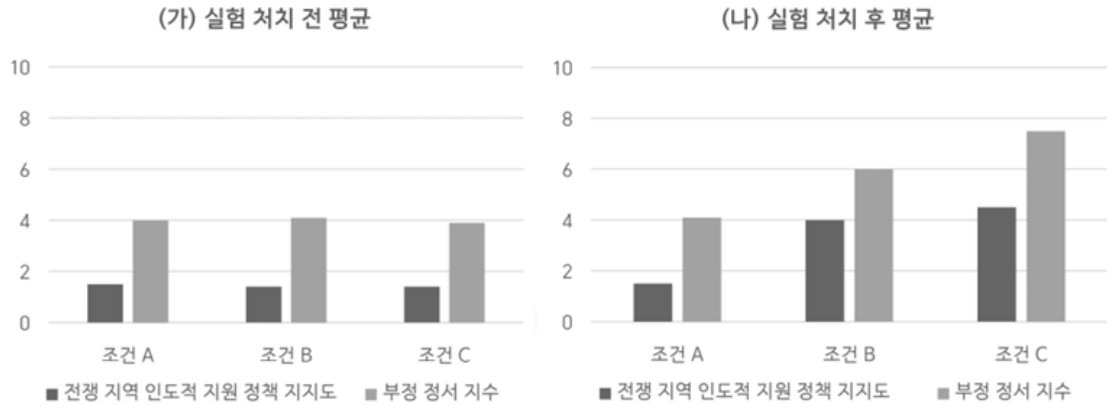
* 조건별 사진 감상 방법:

조건 A (400명): 사진만 보여주고 사진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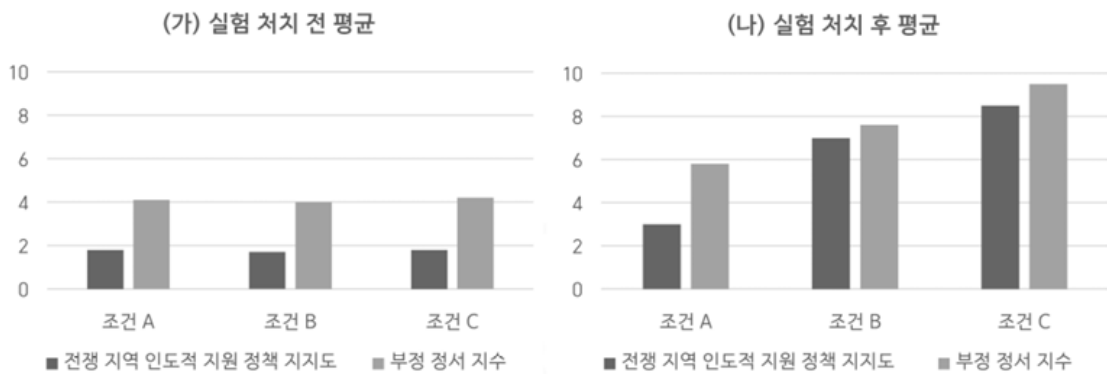
조건 B (400명): 사진의 제목과 사진 속 아이가 전쟁고아임을 알려줌.

조건 C (400명): 사진의 제목과 사진 속 아이가 전쟁고아라는 정보, 그리고 사진작가 역시 전쟁고아 출신임을 알려줌.

<자료 3-1> 자녀가 없는 참가자들의 응답 결과



<자료 3-2> 자녀가 있는 참가자들의 응답 결과



주5) 0에서 10까지로 측정하였고, 수치가 높을수록 인도적 지원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음을 의미함.

주6) 질문 시점에서 슬픔, 분노, 불안, 공포의 네 가지 부정 정서를 0에서 10까지로 측정한 값임. 수치가 높을수록 부정 정서가 강함을 의미함.

주7) 세 조건 간 참가자들의 개인 및 사회적 특성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가정함.

주8) 사전 설문 문항이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험 결과와 직접 상관이 없는 다양한 주제의 문항들을 추가로 질문하였음.

문제 3. 최근 한 극단이 유명 고전소설을 파격적으로 해석하여 공연한 연극을 두고 논란이 있다. 이 연극은 원작의 내용을 거의 대부분 새로 구성하여 제작되었고, 창작 당시의 사회상도 더 이상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 이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이 연극에서 원작에 대한 해석이 왜곡되었다고 비판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이 연극이 원작을 시의적절하게 재구성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학생은 이 두 가지 평가 가운데 어떤 쪽을 지지하는지 오직 하나를 선택하고,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본인의 선택을 정당화하시오.(20점).

제시문

<제시문 1>

"날말들이 스스로 더 잘 이해하고 있다"는 문장은, 작품을 해석할 때 작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텍스트의 근간이 되는 자율적 언어 자체를 중시하거나, 혹은 독자가 자신의 의도로서 텍스트를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문학 작품은 작가의 정신과 의도를 반영하는 매개체로, 독자와 대화를 나누는 일종의 도구이다.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 발화자는 특정한 말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청자에게 전달하려고 한다. 작가도 작품을 만들 때 그 의도를 독자에게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다. 독자는 마치 대화에서 청자가 그렇듯,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대화적 관심'을 가지고 작품을 감상한다. 문학 작품을 창작할 때 작가는 인물, 구성, 배경, 문체 등 여러 요소들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조합하여 다양한 형태의 표현 양식을 만들어 낸다. 이를 통해 작가는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 세계관을 표현하고자 한다. 문학 작품의 감상과 해석은 작가의 창작 의도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학 작품은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가 변하는 생명체가 아니다. 자율적이고 생명력이 있고 변화하는 '의미'라는 개념에 근거해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것은 모든 객관적인 작품 해석을 파괴한다. 어떤 문학 작품이 독자들, 평자들, 또는 다른 작가들에 의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는 생각은 텍스트의 의미와 그 의미가 다양한 맥락에서 드러나는 '의의'를 구분하지 못한 데서 나온 오해다. '의미'는 저자가 특정 기호를 통해 전달하고자 한 고정된 뜻인 반면, '의의'는 그 의미와 감상자, 상황, 또는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건 작품의 의미가 아니라, 의미와 그것이 놓인 맥락과의 관계일 뿐이다. 의의는 항상 관계를 내포하지만, 작품의 의미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고정된 축이다. 예를 들어, 시인이 쓸쓸한 분위기를 전달하려고 시를 썼으나, 어떤 독자가 그 시를 읽으면서 그러한 분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때, 감상자는 창작 의도를 파악하는 데 실패했지만, 그 시의 의미에 대한 타당한 해석은 여전히 쓸쓸한 분위기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여기서 작품의 의미는 작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나는 오늘 공원에 간다"라는 말에서 어떤 단어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하나의 문장은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을 오해할 수 있다. 한 작품을 해석할 때도 해석자들 간에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작품에서 한 문장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작가가 의도한 특정 의미가 확정되려면 그 의미를 결정짓는 요인이 필요하고, 그 요인은 바로 작가의 의도이다. 작가의 의도에 대한 오독이나 작위적인 해석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초인' 개념을 통해, 인간이 기존의 도덕적 틀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창조하고 내면적 힘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자아를 극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개념은 나치당의 인종적 우월성을 강조하고 전쟁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악용되었고, 제국주의적인 국가 권력을 찬양하는 사상으로 오해되었다.

<제시문 2>

슐라이어마허(Schleiermacher)는 작품을 분석할 때 흔히 저자의 의도, 내지는 한 인간 저자의 총체성을 보편적으로 관조하는 것을 중시하면서, 작품 밖에 있는 저자의 삶을 토대로 작품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작품 생산의 주체를 중시하는 관점은 해석학적 이론뿐만 아니라, 역사주의적, 실증주의적, 정신분석 이론 등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감정과 경험 등 다양한 요인들은 예술 작품에 대한 이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그림 속에서 어떤 대상을 인식하는 방식은 단순히 그림 그 자체의 세부적인 재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예술 작품을 해석한다는 것은 작품의 의미를 감상자의 삶과 밀접하게 결합하는 과정이다. 감상자는 자신의 선험적 배경, 일상의 경험, 축적된 지식에 따라 작품에 다양한 시야로 접근한다. 호퍼(Hopper)의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은 어두운 밤, 도시의 한 모퉁이에 있는 식당의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다. 커다란 유리창을 통해 식당 내부가 보이며, 식당 안에는 세 명의 손님과 한 명의 직원이 있다. 남성은 회색 중절모와 짙은 색 정장을 입고 식탁 위에 팔을 얹고 있다. 그의 옆에 앉은 여성은 붉은 머리에 붉은 드레스를 입고 있으며, 이들의 왼쪽에 앉아 있는 또 다른 남성은 뒷모습만 보이고 어두운 정장과 모자를 쓰고 있다. 식당 직원은 흰색 유니폼과 모자를 착용한 채 손님들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인다. 이 작품을 본 관람자 중 과거에 깊은 외로움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림 속 조명과 인물들에서 쓸쓸함과 고독감을 읽는다. 그러나 외로움을 별로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단순히 도시 풍경을 묘사한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오히려 유일하게 불이 켜진 식당의 실내 모습에서 안락함을 느낄 수도 있다. 이처럼 개인의 감정과 경험이 작품 감상에 투영되어 해석이 달라진다. 또

다른 예로, 우리가 어떤 그림에서 원근법을 통해 만들어진 환영을 진짜처럼 느끼는 것도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만들어 낸 결과이다. 원근법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는 세계를 사실 그대로 재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예상에 맞춰 특정 방식으로 구현된 것이다. 이렇듯 그림 속 원근법이나 세부 묘사는 단순히 실제 세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기보다, 보는 사람의 마음과 인식 구조에 의해 재구성된다. 어떤 인식적 출발점과 경험적 토대는 작품에 대한 감상자의 이해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예술 작품 해석의 본질은 우리 외부 세계에 있지 않고 우리 내부에 있다. 즉, 작품을 해석한다는 것은 단순한 시각적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에 기반한 행위이다. 우리가 그림이나 예술 작품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제시문 3>

예술 작품을 해석하려는 시도는 그 안에 내재된 의미를 추출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진다. 그림을 보거나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작품에 숨어 있는 상징이나 철학적 메시지를 파악하려 한다. 손택(Sontag)은 해석에 반대한다. 그녀는 상징적 내용을 추출하고 숨겨진 의미를 해독하려는 해석의 지배적인 방식이 오히려 예술의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경험을 약화한다고 주장한다. 그녀에 따르면 이러한 분석은 예술을 단순한 퍼즐로 만들어 그 미학적 힘을 앗아가 버린다. 손택은 예술을 진정으로 감상하려면 그것의 형식을 수용하고 직접적이고 강렬하게 경험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녀는 예술이 무엇을 전달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음악을 들을 때 그 음악의 역사적 배경이나 작곡가의 의도를 분석하기보다는 그 음악을 듣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다. 예술은 관객의 주관적 경험을 통해서만 진정한 의미와 감동을 발산한다. 손택의 관점에서 예술을 제대로 감상하는 것은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느끼는 것이다.” 예술 작품을 접할 때 관객은 단순히 외부에서 주어진 해석을 받아들이는 수동적 존재가 아닌 능동적 주체라는 점에서 손택의 주장은 바르트(Barthes)의 주장과 맥이 닿아 있다. “이제 우리는 글쓰기에 미래를 돌려주기 위해 글쓰기의 신화를 전복시켜야 한다. 독자의 탄생은 저자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바르트의 이 폭탄 같은 선언은 저자나 텍스트를 과대평가하며 독자의 역할을 소홀히 해 온 것에 대한 일종의 반기이다. 이는 문학 감상에서의 관심 대상을 텍스트에서 독자로 바꾸어 놓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즉, 텍스트 해석의 권한을 창작자가 아닌 관객에 부여하고 저자가 작품의 의미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존재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바르트는 텍스트에 전통적으로 부여된 폐쇄된 의미체계를 비판하며 관객이 저자의 의도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미를 창조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바르트의 입장에서 텍스트는 독자와 관객의 독창적인 관점에 의해 끊임없이 구성되고 재구성되는 열린 존재가 된다. 읽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글을 쓰는 것이다. 바르트와 손택은 예술 이해에 있어 관객에게 능동적인 태도를 요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르트는 창작자의 권위를 해체함으로써 관객이 자유롭게 해석하고 스스로 의미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손택은 해석 자체의 필요성에 도전하며 예술을 감각적이고 정서적으로 충만하게 경험할 것을 강조한다. 두 사람의 관점은 비록 서로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관객의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예술 경험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즉, 바르트와 손택은 예술의 감상과 의미 창출에서 관객의 경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창작자의 의도를 넘어서서 감상자의 감정과 주관적 해석에 집중함으로써 이들은 예술과 관객 간의 관계를 재정의한다.

<제시문 4>

모든 작품은 창작자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창작자에 대하여 많은 사실을 알면 알수록 그의 작품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문학 작품의 내용은 작가와 작중 인물의 삶과 그 시대를 반영한 것과 크게 다름없다. 작가가 작품의 소재를 고른다는지, 특정한 형식을 사용한다는지, 주제를 다룬다는지, 또는 상징이나 이미지를 선택하는 따위의 문제는 작가의 삶을 떠나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들은 어디까지나 작가 특유의 문학관이나 세계관에서 비롯된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어진 작품을 창작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작가의 물질적, 정신적 삶에 대한 이해는 작품을 해석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넓게는 작가의 세계관이나 인생관, 또는 정치관, 그리고 그러한 것에서 파생되는 문학관, 좁게는 그의 교육, 생활 수준, 가족 상황, 인간관계, 심지어는 지극히 사사로운 습관이나 취미에 이르기까지 그의 모든 삶이 다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 작품 해석에 있어서 창작자의 삶과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의 중요 성은 문학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 분야에도 공통되게 적용된다. 드가(Degas)는 19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화가로, 그의 작품은 단순한 미적 표현을 넘어서 시대상과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드가는 원래 파리의 부유한 은행가 집안

에서 태어났으며, 가업을 잇기 위해 법률을 공부했지만 예술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못하고 1855년에 미술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초기에 도덕적 메시지와 명확한 구도를 중시하는 고전주의 화풍을 따른 역사화를 주로 그렸지만, 1870년대 중반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그의 화풍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갑작스러운 시력 악화를 겪으면서 어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고, 이는 그가 그리던 대상과 표현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시각적인 제약은 드가에게 새로운 감각적 체험을 강요했으며, 그가 그리던 인물들에 대한 접근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드가는 고전적인 역사화 속 귀족들 대신 현실의 인물들, 특히 파리의 하류층 여인들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는 자신이 경험한 신체적 제약과 심리적 불안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작품에 깊이 투영된 것이다. 드가의 그림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상은 발레리나들이다. 당시 파리의 발레리나는 무대 위에서 화려한 공연을 하는 아름다운 여성이 아니라 차별과 억압을 받던 하층 계급의 소녀들이었다. 그들은 공연을 위해 고된 훈련을 해야 했으며, 때로는 심각한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이러한 고단함과 고통스러움을 견뎌낸 이유는 발레리나라는 삶이 자신과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드가의 그림은 이러한 하류층 여성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진지하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예술적 가치를 지닌다. 드가는 무대 뒤편 발레리나들의 모습을 포착하여 그들의 고통과 일상적인 어려움을 사실적으로 그렸다. 이는 드가가 단지 미적 아름다움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현실을 직시하고 이 소녀들의 삶을 깊이 이해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드가의 파스텔화 기법은 그의 감정적인 접근을 더욱 강조하며, 부드럽고 따뜻한 색조로 하류층 여성들의 고통을 감싸는 듯한 느낌을 준다. 드가의 작품은 그가 살았던 시대의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의 개인적 경험, 특히 신체적 고통과 감정적 공감이 어떻게 예술적 표현으로 승화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출제 경향

1. 대논점을 제시해 준다.
2. 제시문에 그룹 키워드를 무조건 주지는 않는다.
3. 대논점에 대한 찬성/반대, 긍정/부정 입장으로 출제되는 경우 있음.
4. 경희대 사회, 한국외대와 달리 '각 입장 요약'을 요구함. **각 입장에 대한 통합적 요약이 필요함.**

풀이&작성 Tip

1. 풀이 :
 - 1) 대논점 정확하게 인지
 - 2) 논리적으로 이항 분류인지 확인
 - 3) 그룹 키워드가 이항 대립적인지 확인
 - 4) 문제 3에서 힌트 얻기
 - 5) 읽으면서 문제 2, 3에 사용할 논리, 표현들 갈무리해 놓기.
2. 작성 분량 : 700자 이상
3. 작성 순서
 - 1) 서론 : 대논점 제시 및 제시문 분류, 키워드 부여 완료
 - 2) 본론
 - (1) 입장 전체 문장(공통점) : 1. 그룹 키워드의 일반론 2. 두 제시문이 동의할 내용
예) 예술지상주의는 예술의 목적을 '미적 가치'의 구현에 한정하며 예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 (2) 각 제시문 요약 : 30.70 법칙 적용해서 최소 2문장
예) <제시문 4>에서 예술은 역사와 사회의 맥락에서 벗어나 단절된 자율적 유기체라 말한다. 따라서 '예술은 무엇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같이 예술의 유용성에서 그 목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술작품을 통해 경험하는 순수한 '미적' 체험이 예술 본연의 목적이라고 본다.
 - (3) 같은 입장 내 차이점 1. 선명한 대립(비교 기준) / 2. 재요약(주목 지점 차이)
예) <제시문 1>은 감각적인 경험과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밀착을 중심으로 예술지상주의를 옹호하는 반면, <제시문 4>는 예술 그 자체의 목적성에 초점을 두고 순수한 아름다움에서 오는 예술적 기쁨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두 제시문은 구별된다.

채점 지침

- A: 제시문 간의 관계까지 충분히 고려하면서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통합적으로 잘 분석하여 기술한 답안
- B: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잘 분석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제시문의 차이점이나 관계를 효과적으로 부각하지 못한 답안

발문 분석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4>는 예술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40점)

- ▶ 예술에 관한 견해가 2023년에 심미주의 vs 도덕주의 이항대립으로 출제되었다. 따라서 기출을 풀어본 학생이라면 의심할 것이다. 과연 심미주의 vs 도덕주의 대립인가? 아니면 다른 대립 구도인가?

제시문 분석

<제시문 1> "날말들이 스스로 더 잘 이해하고 있다"는 문장은, 작품을 해석할 때 작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텍스트의 공간이 되는 자율적 언어 자체를 중시하거나, 혹은 독자가 자신의 의도로써 텍스트를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문학 작품은 작가의 정신과 의도를 반영하는 매개체로, 독자와 대화를 나누는 일종의 도구이다.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 발화자는 특정한 말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청자에게 전달하려고 한다. ①작가도 작품을 만들 때 그 의도를 독자에게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다. 독자는 마치 대화에서 청자가 그렇듯,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대화적 관심'을 가지고 작품을 감상한다. 문학 작품을 창작할 때 작가는 인물, 구성, 배경, 문체 등 여러 요소들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조합하여 다양한 형태의 표현 양식을 만들어 낸다. 이를 통해 작가는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 세계관을 표현하고자 한다. 문학 작품의 감상과 해석은 작가의 창작 의도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학 작품은 시간이 지나면서 ②의미가 변하는 생명체가 아니다. 자율적이고 생명력이 있고 변화하는 '의미'라는 개념에 근거해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것은 모든 객관적인 작품 해석을 파괴한다. 어떤 문학 작품이 독자들, 평자들, 또는 다른 작가들에 의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는 생각은 텍스트의 의미와 그 의미가 다양한 맥락에서 드러나는 '의의'를 구분하지 못한 데서 나온 오해다. '의미'는 저자가 특정 기호를 통해 전달하고자 한 고정된 뜻인 반면, '의의'는 그 의미와 감상자, 상황, 또는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건 작품의 의미가 아니라, 의미와 그것이 놓인 맥락과의 관계일 뿐이다. ③의의는 항상 관계를 내포하지만, 작품의 의미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고정된 축이다. 예를 들어, 시인이 쓸쓸한 분위기를 전달하려고 시를 썼으나, 어떤 독자가 그 시를 읽으면서 그러한 분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때, 감상자는 창작 의도를 파악하는 데 실패했지만, 그 시의 의미에 대한 타당한 해석은 여전히 쓸쓸한 분위기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여기서 작품의 의미는 작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나는 오늘 공원에 간다"라는 말에서 어떤 단어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하나의 문장은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을 오해할 수 있다. 한 작품을 해석할 때도 해석자들 간에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작품에서 한 문장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작가가 의도한 특정 의미가 확정되려면 그 의미를 결정짓는 요인이 필요하고, 그 요인은 바로 작가의 의도이다. 작가의 의도에 대한 오독이나 작위적인 해석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초인' 개념을 통해, 인간이 기존의 도덕적 틀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창조하고 내면적 힘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자아를 극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개념은 나치당의 인종적 우월성을 강조하고 전쟁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악용되었고, 제국주의적인 국가 권력을 찬양하는 사상으로 오해되었다.

▶ 감상자는 작가의 창작 의도를 파악하고 작가가 의도한 특정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Note

Note ①

제시문은 작가의 의도를 강조한다.

Note ②

제시문은 작품의 고정된 의미를 강조하며, 문학 작품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객관적이지 않은 행위로 본다.

Note ③

제시문은 의의와 의미를 구분하며, 의의는 맥락속에서 파악되는 주관적 해석, 의미는 객관적으로 작가가 강조한 내용이라고 본다. 이때 다양한 해석으로 의미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것을 경계한다.

<제시문 2> 술라이어마허(Schleiermacher)는 작품을 분석할 때 흔히 저자의 의도, 내지는 한 인간 저자의 총체성을 보편적으로 관조하는 것을 중시하면서, 작품 밖에 있는 저자의 삶을 토대로 작품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작품 생산의 주체를 중시하는 관점은 해석학적 이론뿐만 아니라, 역사주의적, 실증주의적, 정신분석 이론 등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④그러나 우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감정과 경험 등 다양한 요인들은 예술 작품에 대한 이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그림 속에서 어떤 대상을 인식하는 방식은 단순히 그림 그 자체의 세부적인 재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⑤예술 작품을 해석한다는 것은 작품의 의미를 감상자의 삶과 밀접하게 결합하는 과정이다. 감상자는 자신의 선험적 배경, 일상의 경험, 축적된 지식에 따라 작품에 다양한 시야로 접근한다. 호퍼(Hopper)의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은 어두운 밤, 도시의 한 모퉁이에 있는 식당의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다. 커다란 유리창을 통해 식당 내부가 보이며, 식당 안에는 세 명의 손님과 한 명의 직원이 있다. 남성은 회색 중절모와 짙은 색 정장을 입고 식탁 위에 팔을 얹고 있다. 그의 옆에 앉은 여성은 붉은 머리에 붉은 드레스를 입고 있으며, 이들의 왼쪽에 앉아 있는 또 다른 남성은 뒷모습만 보이고 어두운 정장과 모자를 쓰고 있다. 식당 직원은 흰색 유니폼과 모자를 착용한 채 손님들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인다. 이 작품을 본 관람자 중 과거에 깊은 외로움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림 속 조명과 인물들에서 쓸쓸함과 고독감을 읽는다. 그러나 외로움을 별로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단순히 도시 풍경을 묘사한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오히려 유일하게 불이 켜진 식당의 실내 모습에서 안락함을 느낄 수도 있다. 이처럼 ⑥개인의 감정과 경험이 작품 감상에 투영되어 해석이 달라진다. 또 다른 예로, 우리가 어떤 그림에서 원근법을 통해 만들어진 환영을 진짜처럼 느끼는 것도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만들어 낸 결과이다. 원근법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는 세계를 사실 그대로 재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예상에 맞춰 특정 방식으로 구현된 것이다. 이렇듯 그림 속 원근법이나 세부 묘사는 단순히 실제 세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기보다, ⑦보는 사람의 마음과 인식 구조에 의해 재구성된다. 어떤 인식적 출발점과 경험적 토대는 작품에 대한 감상자의 이해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예술 작품 해석의 본질은 우리 외부 세계에 있지 않고 우리 내부에 있다. 즉, 작품을 해석한다는 것은 단순한 시각적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에 기반한 행위이다. 우리가 그림이나 예술 작품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 예술은 보는 사람의 마음과 인식 구조에 의해 재구성되며 우리는 예술 작품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제시문 3> 예술 작품을 해석하려는 시도는 그 안에 내재된 의미를 추출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진다. 그림을 보거나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작품에 숨어 있는 상징이나 철학적 메시지를 파악하려 한다. ⑧손택(Sontag)은 해석에 반대한다. 그녀는 상징적 내용을 추출하고 숨겨진 의미를 해독하려는 해석의 지배적인 방식이 오히려 예술의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경험을 약화한다고 주장한다. 그녀에 따르면 이러한 분석은 예술을 단순한 퍼즐로 만들어 그 미학적 힘을 앗아가 버린다. 손택은 예술을 진정으로 감상하려면 그것의 형식을 수용하고 직접적이고 강렬하게 경험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녀는 예술이 무엇을 전달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⑨음악을 들을 때 그 음악의 역사적 배경이나 작곡가의 의도를 분석하기보다는 그 음악을 듣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다. 예술은 관객의 주관적 경험을 통해서만 진정한 의미와 감동을 발산한다. 손택의 관점에서 예술을 제대로 감상하는 것은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Note ④

그러나 이전의 술라이어마허는 저자의 의도와 작가의 삶을 이해하는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제시문은 ‘그러나’를 이용하여 내용을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시문은 작가의 삶 이외의 다른 요소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Note ⑤

제시문은 예술 작품의 해석은 감상자의 삶과 밀접하다고 본다.

Note ⑥

⑤와 내용적으로는 동의 반복이지만, 표현이 좋아서 이태훈T라면 문제 2, 3을 위해 갈무리해둘 것 같다.

Note ⑦

감상자의 인식에 따라 재구성된다.로 패러프레이징

Note ⑧

여기까지 읽으면 ‘해석’을 반대한다는 점에서 <제시문 1>과 같은 그룹으로 묶고 싶어진다.

Note ⑨

그러나 이 부분에서 <제시문 3>이 <제시문 2>와 같은 그룹이라는 점이 선명해진다.

느끼는 것이다.” 예술 작품을 접할 때 관객은 단순히 외부에서 주어진 해석을 받아들이는 수동적 존재가 아닌 능동적 주체라는 점에서 손택의 주장은 바르트(Barthes)의 주장과 맥이 닿아 있다. “이제 우리는 글쓰기에 미래를 돌려주기 위해 글쓰기의 신화를 전복시켜야 한다. 독자의 탄생은 저자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바르트의 이 폭탄 같은 선언은 저자나 텍스트를 과대평가하며 독자의 역할을 소홀히 해 온 것에 대한 일종의 반기이다. 이는 문학 감상에서의 관심 대상을 텍스트에서 독자로 바꾸어 놓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즉, 텍스트 해석의 권한을 창작자가 아닌 관객에 부여하고 저자가 작품의 의미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존재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바르트는 텍스트에 전통적으로 부여된 폐쇄된 의미체계를 비판하며 ⑩관객이 저자의 의도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미를 창조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바르트의 입장에서 텍스트는 독자와 관객의 독창적인 관점에 의해 끊임없이 구성되고 재구성되는 열린 존재가 된다. 읽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글을 쓰는 것이다. 바르트와 손택은 예술 이해에 있어 관객에게 ⑩능동적인 태도를 요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르트는 창작자의 권위를 해체함으로써 관객이 자유롭게 해석하고 스스로 의미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손택은 해석 자체의 필요성에 도전하며 예술을 감각적이고 정서적으로 충만하게 경험할 것을 강조한다. 두 사람의 관점은 비록 서로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관객의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예술 경험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즉, 바르트와 손택은 예술의 감상과 의미 창출에서 관객의 경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창작자의 의도를 넘어서서 감상자의 감정과 주관적 해석에 집중함으로써 이들은 예술과 관객 간의 관계를 재정의한다.

▶ **창작자의 의도를 넘어서는 감상자의 능동적 역할이 필요하다.**

<제시문 4> 모든 작품은 창작자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창작자에 대하여 많은 사실을 알면 알수록 그의 작품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문학 작품의 내용은 작가와 작중 인물의 삶과 그 시대를 반영한 것과 크게 다름없다. 작가가 작품의 소재를 고른다는지, 특정한 형식을 사용한다는지, 주제를 다룬다는지, 또는 상징이나 이미지를 선택하는 따위의 문제는 작가의 삶을 떠나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들은 어디까지나 작가 특유의 문학관이나 세계관에서 비롯된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어진 작품을 창작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작가의 물질적, 정신적 삶에 대한 이해는 작품을 해석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넓게는 작가의 세계관이나 인생관, 또는 정치관, 그리고 그러한 것에서 파생되는 문학관, 좁게는 그의 교육, 생활 수준, 가족 상황, 인간관계, 심지어는 지극히 사사로운 습관이나 취미에 이르기까지 그의 모든 삶이 다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 ⑫작품 해석에 있어서 창작자의 삶과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은 문학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 분야에도 공통되게 적용된다. 드가(Degas)는 19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화가로, 그의 작품은 단순한 미적 표현을 넘어서 시대상과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드가는 원래 파리의 부유한 은행가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가업을 잇기 위해 법률을 공부했지만 예술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못하고 1855년에 미술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초기에 도덕적 메시지와 명확한 구도를 중시하는 고전주의 화풍을 따른 역사화를 주로 그렸지만, 1870년대 중반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그의 화풍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갑작스러운 시력 악화를 겪으면서 어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고, 이는 그가 그리던 대상과 표현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시각적인 제약은 드가에게 새로운 감각적 체험을 강요했으며, 그가 그리던 인물들에 대한 접근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드가는 고전적인 역사 를 주로 그렸지만, 1870년대 중반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그의 화풍에도 커다란 변화가

Note ⑩

사용 가능한 표현 : 주체적, 능동적 의미 창조, 재창조.

Note ⑪

<제시문 3>은 <제시문 2>와 논지가 비슷해 보이나, 수용자의 능동적 태도를 강조한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같은 입장 내 차이로 미리 도출해 두자.

Note ⑫

<제시문 4>는 <제시문 1>과 유사해 보이지만, 창작자의 ‘삶과 배경’에 주목한다..

일어났다. 갑작스러운 시력 악화를 겪으면서 어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고, 이는 그가 그리던 대상과 표현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시각적인 제약은 드가에게 새로운 감각적 체험을 강요했으며, 그가 그리던 인물들에 대한 접근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드가는 고전적인 역사화 속 귀족들 대신 현실의 인물들, 특히 파리의 하류층 여인들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는 자신이 경험한 신체적 제약과 심리적 불안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작품에 깊이 투영된 것이다. 드가의 그림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상은 발레리나들이다. 당시 파리의 발레리나는 무대 위에서 화려한 공연을 하는 아름다운 여성이 아니라 차별과 억압을 받던 하층 계급의 소녀들이었다. 그들은 공연을 위해 고된 훈련을 해야 했으며, 때로는 심각한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이러한 고단함과 고통스러움을 견뎌낸 이유는 발레리나라는 삶이 자신과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드가의 그림은 이러한 하류층 여성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진지하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예술적 가치를 지닌다. 드가는 무대 뒤편 발레리나들의 모습을 포착하여 그들의 고통과 일상적인 어려움을 사실적으로 그렸다. 이는 드가가 단지 미적 아름다움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현실을 직시하고 이 소녀들의 삶을 깊이 이해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드가의 파스텔화 기법은 그의 감정적인 접근을 더욱 강조하며, 부드럽고 따뜻한 색조로 하류층 여성들의 고통을 감싸는 듯한 느낌을 준다. 드가의 작품은 그가 살았던 시대의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의 개인적 경험, 특히 신체적 고통과 감정적 공감이 어떻게 예술적 표현으로 승화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 작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작품 창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작가의 삶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논리 Table

		입장 전체 논지	입장 내 차이
창작자 중심주의	<1>	작가의 의도와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1>은 창작자 의도의 고정성에 주목하면, <4>는 작가의 개인적 경험과 배경을 강조
	<4>		
수용자 중심주의	<2>	작품을 감상하는 수용자의 경험과 해석이 중요하다	<2>가 감상자 개인의 감정과 경험 및 배경을 강조한다면 <3>은 수용자의 능동성을 강조
	<3>		

※ 개별 제시문 요지는 생략했습니다.

How To Write 문제 1

예시 답안

①예술에 관한 견해는 창작자(작가)의 의도와 배경을 중시하는 창작자 중심주의와, 작품을 감상하는 수용자(독자)의 경험과 능동적인 해석을 중시하는 수용자 중심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제시문 1>과 <제시문 4>는 창작자 중심주의를 지지하는 입장, <제시문 2>와 <제시문 3>은 수용자 중심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2) <제시문 1>은 예술 작품에 대한 해석은 작가의 정신과 창작 의도를 이해하는 과정이며, 예술 작품에는 작가가 의도한 특정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작품과 다양한 요소들과의 관계에서 의미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작가가 전달하고자 한 텍스트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 독자나 다른 작가들이 작품을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하는 것은 객관적인 작품 해석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작가의 의도에 대한 작위적인 해석은 니체의 '초인' 개념을 악용한 나치당의 사레처럼 예상치 못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감상자는 창작 의도를 파악하고 작가가 의도한 특정 의미를 확정해야 한다. <제시문 4>는 예술 작품은 창작자의 삶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작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작품 창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작가의 정신적·물질적 삶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본다. 작품 해석에 있어서 작가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드가의 작품을 예로 들고 있다. 신체적 제약과 심리적 불안을 경험한 드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공감을 예술로 승화시켰음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작가의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 배경에 대한 공감이 예술 작품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③<제시문 1>이 예술 작품의 해석에 있어서 창작자의 의도와 고정된 의미에 주목했다면, <제시문 4>는 작가의 개인적 경험 및 배경, 사회적 상황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제시문 2>는 개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감정과 경험이 예술 작품 이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호퍼의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이 서로 다른 경험과 지식 배경을 가진 사람에 의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술 작품은 보는 사람의 마음과 인식 구조에 의해 재구성되는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예술 작품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④<제시문 3>은 예술 작품의 해석에 있어 관객의 능동적인 태도를 강조한다. 바르트는 창작자의 입장이 아닌 감상자가 예술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주목하며, 해석의 권한을 창작자가 아닌 감상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감상자는 스스로 작품의 의미를 창조하는 존재이며, 주관적 경험을 통해 작품은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독창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 손택은 작가의 의도나 메시지를 파악하려는 인위적인 노력을 거부하고, 관객이 예술 작품을 감정적이고 정서적으로 충만하게 경험할 것을 강조한다. 이 둘은 결국 감상자의 개별적이고 주관적 경험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창작자의 의도를 넘어서는 감상자의 능동적 역할을 중시한다. <제시문 2>가 예술 작품이 개인의 감정과 경험 및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면, <제시문 3>은 예술 작품의 해석에 있어서 수용자의 충만한 경험과 능동적인 태도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1558자)

How To Write

HTW①

서론에서 제시문 분류 및 키워드 부여를 마무리 하자.

HTW②

예시 답안은 '입장 전체 문장'을 뺐다. 우리는 입장 전체 문장을 빼지 말자. 썸은 '창작자 중심주의는 감상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저자의 의도를 찾아내는 것이 예술작품의 올바른 이해를 이끈다고 본다.'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았다.

HTW③

창작자 중심주의의 같은 입장 내 비교는 재요약, 주목 지점 차이 수준이다.

HTW④

네 제시문 요약 중에서 가장 30/70 법칙을 잘 지킨 요약이다.

출제 경향

1. <자료>를 분석&해석하고 [문제 1]의 두 입장과 엮어 일정한 논리를 제시하는 문제
2. 최근 어려워지는 추세
3. 출제 패턴
 - 1) 각 입장 지지하기
예) <자료 1>은 기능론을, <자료 2>는 갈등론을 지지하는 자료로 사용 가능하다.
 - 2) 양면해석
예) <자료 1>의 A라는 특성과 수치에 주목하면 갈등론을 지지하는 자료로 사용 가능하지만, B라는 특성과 수치에 주목하면 기능론을 지지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다.
 - 3) 자료 간 연계 및 종합
<자료 1-1>에서 A국은 주거혼합정책에 적극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때 <자료 1-2>에서 A국의 주거혼합정책이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켰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료 1>은 주거혼합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을 지지하는 자료로 사용 가능하다.

풀이&작성 Tip

1. 풀이
 - 1) 발문 조건 민감하게 반응하자. (각각, 종합적으로)
 - 2) 문제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라.
 - 3) '심미주의적 정책을 시행했다고, 심미주의를 옹호하는 자료가 아니다. 심미주의적 정책을 시행했고, 이점이 있으면 심미주의 옹호 자료, 손해가 크면 도덕주의 지지 자료 이다(왜? 성균관대 2번은 문제 1의 이항대립 구도 하에 출제되기 때문)
 - 4) 변별 Point를 뽑아보자. (1) 심층 해석 (2) 제시문 기반 구체화 지점
2. 작성
 - 1) 도표 논술은 수치 분석 / 의미 해석으로 나누어 쓰면 된다.
 - 2) 성균관대는 도표 문항도 두괄식으로 서술해도 된다.
 - 3) 잊지 말자. 제.기.구(제시문 기반 구체화). 제시문의 내용을 기반으로 도표 및 문제 상황을 풍부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다만 도표 그 자체가 어려우면 우선 정답 논리부터 제시하고 제시문 기반 구체화
 - 4) 분량 목표는 700자 이상. 기출 연습은 (1) 정답 논리 도출 우선 (2) 익숙해지면 제시문 기반 구체화로 분량 늘리기

기출 분석 문제 2

발문 분석

문제 2. <자료 1~3>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분석을 활용하여 [문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지지하는 논리를 제시하시오. (40점)

- ▶ 1)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를 요구했다. '종합적으로'는 (1) 자료들을 연계시키기 (2) 한 자료를 다각도에서 바라보기 (3) 종합을 요구했으나 실제로 유의미한 종합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세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
- 2) 두 입장을 각각 지지하는 논리를 제시하라 → 자료들을 이용하여 창작자 중심주의도 옹호하고 수용자 중심주의도 옹호해야 한다.

도표 분석

<자료 1>

아래 <자료 1-1>은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진행한 두 예술 교육 프로그램¹⁾에 대한 설명이다. <자료 1-2>와 <자료 1-3>은 각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이루어진 자기 평가와 전문가 평가 결과²⁾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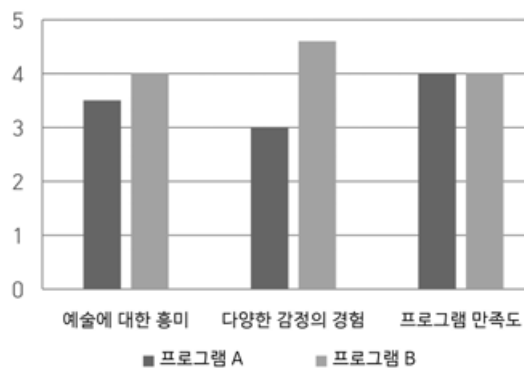
주1) 각 프로그램 당 50명의 어린이들이 무작위로 배정되었음. 두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개인 및 사회적 특성에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가정함. 두 프로그램은 동일한 시간 동안 진행되었음.

주2) <자료 1-2>의 자기 평가와 <자료 1-3>의 전문가 평가에서 각 항목은 5점 만점으로 평가됨(0점: 매우 낮음, 5점: 매우 높음).

- ▶ <자료 1-1>이 두 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을 논한다면, <자료 1-2>, <자료 1-3>은 그 결과이다. 즉 인-과 구조로 되어 있으니, 어떤 원인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탐구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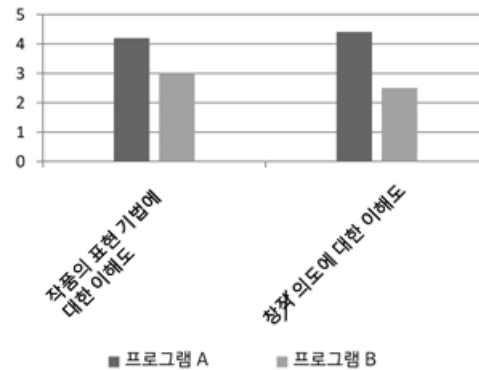
<자료 1-1> 프로그램 설명	
대상 예술 작품: 이중섭의 <소> 연작	
프로그램 A	프로그램 B
도슨트(docent) ³⁾ 가 이중섭의 생애와 창작 당시의 역사적 맥락, 독특한 색채 사용과 표현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 후, 어린이들과 작품의 의미와 가치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	이중섭의 <소> 연작을 관객 참여형 미디어 아트로 변환하여, 어린이들이 작품의 구성 요소, 색상 등을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작품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경험을 하는 프로그램

- ▶ 프로그램 A는 창작자 중심주의적, 프로그램 B는 수용자 중심주의적이다.



- ▶ 예술에 대한 흥미나 다양한 감정의 경험 점수가 프로그램 B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분석) 이는 작품의 능동적이고 다양한 해석을 강조하는 수용자 중심주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해석)

8 <자료 1-3>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전문가 평가 평균



▶ <자료 1-3>에선 작품의 표현 기법과 창작 의도에 대한 이해도 점수 모두 프로그램 A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프로그램 A의 효과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창작자 중심주의를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자료 2>

박경리 작가의 <토지>는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개인의 운명과 역사의 조류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폭넓게 조망한 작품이다. 한 대학에 개설된 <한국문학의 이해> 수업에서 학생들이 이 작품을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였다. 아래의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자료⁴⁾와 표는 학생들의 전공에 따라 감상문에서 많이 사용된 핵심 단어와 단어별 출현 빈도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 상황을 이해하자. 이 수업은 박경리 작가를 이해하는 수업이었다.

<전공 A>



핵심 단어	출현 비율
갈등	32%
자아	28%
무의식	16%
정체성	14%
기타	10%

<전공 B>



핵심 단어	출현 비율
경제	30%
계층	26%
착취	20%
토지	16%
기타	8%

▶ 도표에서 드러나는 사실은, 수업을 들었음에도, 작품에 대한 감상이 전공별로 달랐다는 것이다. 두 방향으로 도표를 해석하자.

- 1) 수용자의 특성에 따라 작품 해석이 달라진다는 사실이 드러남 → 수용자 중심주의 지지 자료로 사용 가능
- 2) 수업을 통해 작가를 이해했음에도 작가의 의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함 → 사람들은 작가의 의도를 곡해하여 올바르게 작품을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남 → 창작자 중심주의를 지지하는 자료로 사용 가능(즉 정확한 이해를 위해선, 수용자의 주관을 제외하고 작가의 의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

<자료 3>

아래 그래프는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 연구 결과이다. 모든 참가자에게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 지역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에 대한 지지도,⁵⁾ 참가자의 현재 정서 상태,⁶⁾ 자녀 유무를 물었다. 이후 참가자들을 A, B, C 세 조건에 각각 400명씩 무작위로 배정하고,⁷⁾ 각 조건의 참가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각기 다른 방법으로 어린이의 얼굴 사진 작품을 보여주었다. 그런 다음, 전쟁 지역 인도적 지원 정책 지지도와 현재 느끼는 정서 상태를 다시 물었다.⁸⁾

* 조건별 사진 감상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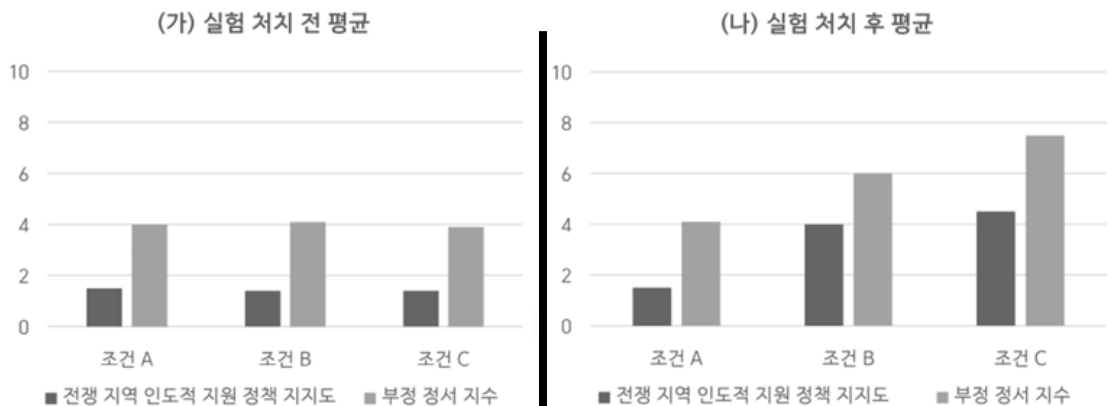
조건 A (400명): 사진만 보여주고 사진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음.

조건 B (400명): 사진의 제목과 사진 속 아이가 전쟁고아임을 알려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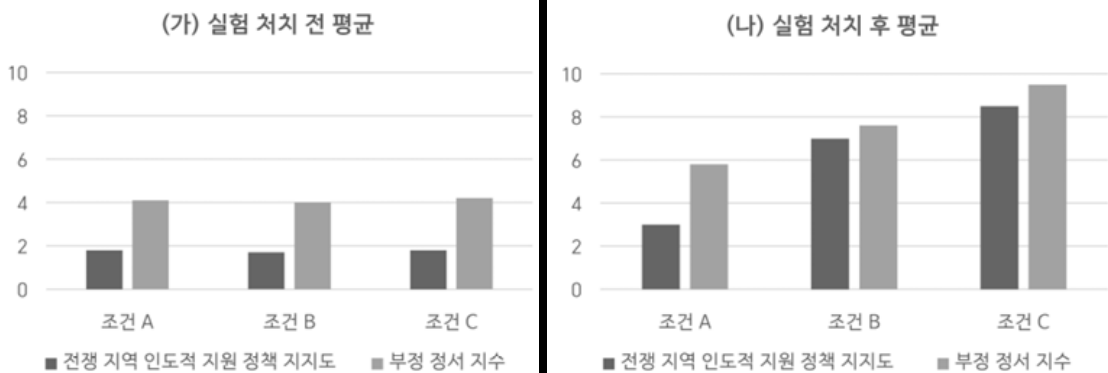
조건 C (400명): 사진의 제목과 사진 속 아이가 전쟁고아라는 정보, 그리고 사진작가 역시 전쟁고아 출신임을 알려줌.

▶ 조건 A~C의 의미를 창작자 중심주의 vs 수용자 중심주의에 의거하여 생각해보자. A, B, C 순으로 작가와 창작 의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다.

<자료 3-1> 자녀가 없는 참가자들의 응답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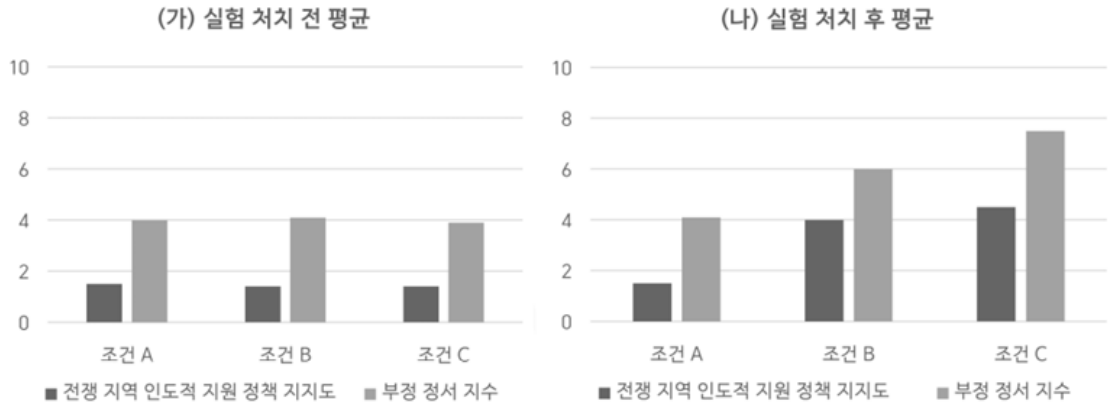


<자료 3-2> 자녀가 있는 참가자들의 응답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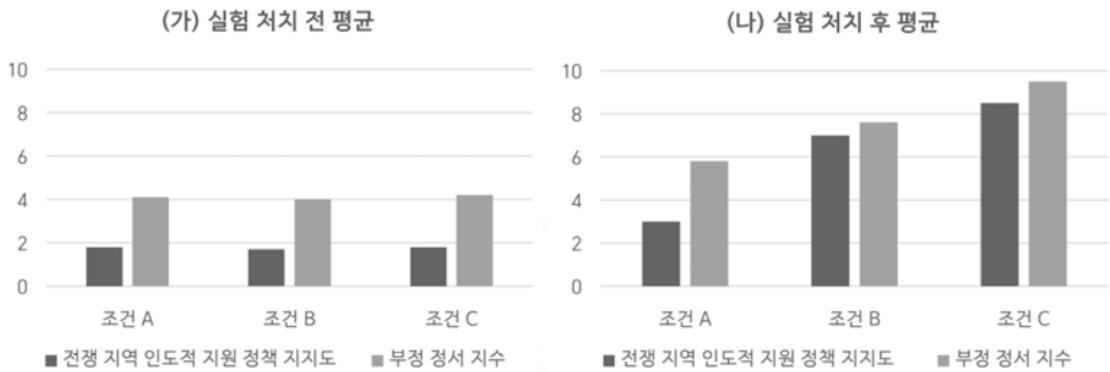


▶ 자녀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둘 다 A<B<C 순으로 인도적 정책 지지도, 부정 정서 지수가 높아졌다.(분석), 즉 작가와 작품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 작품의 의미를 잘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해석) 이를 통해 창작자 중심주의를 지지할 수 있다.

<자료 3-1> 자녀가 없는 참가자들의 응답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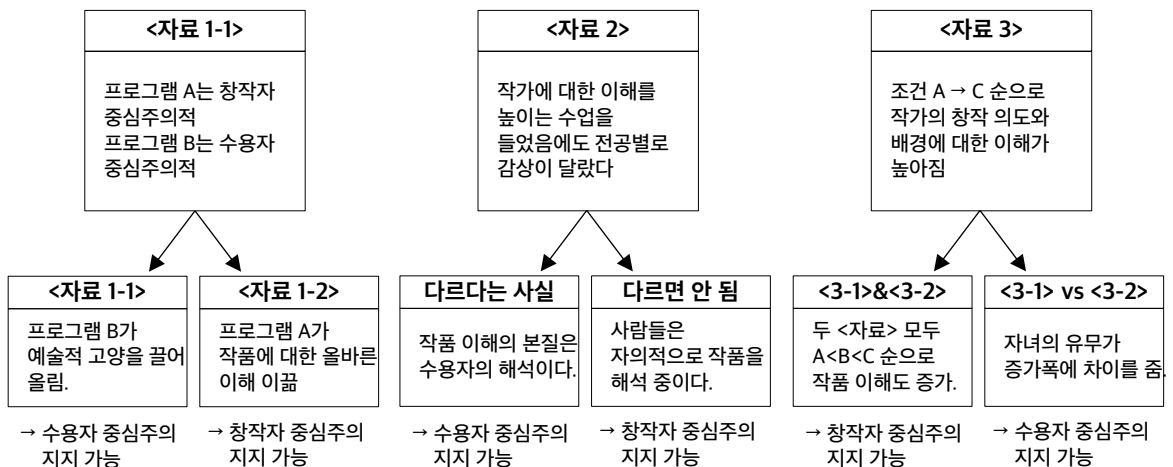


<자료 3-2> 자녀가 있는 참가자들의 응답 결과



▶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에 비해 동 조건일 때 변화량이 크게 나타난다.(분석), 이는 자녀의 유무라는 수용자의 개인적 차이가 작품을 수용하는 정도를 다르게 만들었다는 것이다(해석) 즉 개인적 경험과 수용자의 특성이 작품 해석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수용자 중심주의를 지지하는 자료로도 사용 가능하다.

논리 Table



예시 답안

①<자료 1>~<자료 3>은 창작자 중심주의와 수용자 중심주의 양쪽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②<자료 1>은 예술 작품의 해석에 있어서 창작자와 수용자 중 어느 입장을 더 중시하는가에 따라 해석 교육 프로그램의 방법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한다. <자료 1-1>의 프로그램 A는 작가의 생애와 창작 당시의 배경 등을 설명하며 작가의 배경과 의도를 고려하여 작품을 해석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제시문 1>과 <제시문 4>처럼 창작자 중심주의를 지지한다. 프로그램 B는 어린이들이 작품을 자유롭게 변화시키는 활동을 통해 작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경험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수용자 중심주의를 지지하며, 작품을 감정적이고 정서적으로 충만하게 경험을 것을 강조한 <제시문 3>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④<자료 1-2>에서 프로그램 B의 자기 평가 결과를 보면 예술에 대한 흥미나 다양한 감정의 경험 점수가 프로그램 A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⑤이는 작품의 능동적이고 다양한 해석을 강조하는 수용자 중심주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 반면 <자료 1>은 프로그램의 배경지식을 고려하여 작가 경계를 바탕으로 한 수용자의 해석 활동을 강조하며, 여전히 작품 모두 프로그램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는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창작자 중심주의를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자료 2>는 워드 클라우드 자료와 표를 통해 <토지>라는 작품을 읽은 학생들 전공에 따라 감상문에 활용된 핵심 단어와 출현 빈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전공별로 학생들의 개별적 경험과 지식관심 분야가 다르고, 그에 따라 동일한 작품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수용자의 배경에 따른 능동적인 해석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수용자 중심주의를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반면, ⑥<자료 2>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토지>라는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주요 내용이 워드 클라우드에 나타난 전공별 작품 해석에 오롯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작가의 의도를 임의로 해석하고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작품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작가의 의도와 창작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창작자 중심주의를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자료 3>은 조건 A, B, C에 따른 전쟁 지역 인도적 지원 정책 지지도 및 정서 상태의 변화를 자녀의 유무에 따라 비교하며 보여주고 있다. <자료 3-1>, <자료 3-2>에서 인도적 정책 지지도, 부정적 정서 수준이 모두 A<B<C 순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작품에 대한 지식과 작가의 배경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 작품의 진정한 의미와 작가의 의도가 담긴 사회적 메시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작가의 의도와 창작 배경에 대한 이해를 중시하는 창작자 중심주의를 지지한다. 한편, <자료 3-1>보다 <자료 3-2>의 실험 전후 변화량이 모든 조건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즉 자녀가 있는 집단이 자녀가 없는 집단보다 사진과 작가에 대한 배경 설명을 들었을 때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험 전후 정책 지지도의 변화량이 자녀가 없는 집단보다 자녀가 있는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이는 자녀 유무라는 수용자의 개인적 차이가 정서를 넘어서 정책 지지도에까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개인적 경험과 수용자의 특성이 작품 해석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자료 3>은 수용자 중심주의를 지지한다.

How To Write

HTW①

두괄식으로 세 자료가 모두 두 입장을 지지 가능한 양면적 자료라는 사실을 밝혔다.

HTW②

<자료 1>의 결론 또한 두괄식으로 제시했다.

HTW③

<자료>의 의미를 제시문의 내용과 엮어서 설명했다. 이것이 **제거구**이다.

HTW④, ⑤

④는 도표 분석이고,

⑤는 도표 해석이다.

분석은 수치적 특징 및 추세를 적는 것이고, 해석은 그 분석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HTW⑥

<자료>를 다른 관점에서 본다고 선언하고 있다.

Mission

도표 분석 부분을 빨간색, 도표 해석 부분을 파란색으로 나누어서 밑줄 쳐 보자.

출제 경향

1. 논쟁에 대해 [문제 1]의 두 입장 중 하나를 골라 A안 / B안 선택 or C에 대한 찬/반을 고르고 이를 정당화하는 문제
2. [문제 1]의 제시문은 기본, 최근엔 [문제 2]의 <자료>까지 사용하기를 요구함

풀이&작성 Tip

1. 풀이
 - 1) 두 상황 중 어떤 선택이 문제 1의 어떤 입장과 상응하는지 부터 빠르게 분석
 - 2) brainstorm : 왜? 하필? 이 논점엔?
 - 3) 20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과몰입 금지
- 작성
 - 1) 주장-예상 반론-재반론 구조로 작성
 - 2) Tip : 주장은 일반론적 옹호, 재반론은 1)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 2) 주장보다 현실적, 구체적인 논점에서의 옹호
 - 3) 제.기.구는 기본, <자료>도 빼놓지 않고 사용해야 한다.
 - 4) 분량은 최소 500자.

기출 분석 문제 3

발문 분석

문제 3. 최근 한 극단이 유명 고전소설을 파격적으로 해석하여 공연한 연극을 두고 논란이 있다. 이 연극은 원작의 내용을 거의 대부분 새로 구성하여 제작되었고, 창작 당시의 사회상도 더 이상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 이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이 연극에서 원작에 대한 해석이 왜곡되었다고 비판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이 연극이 원작을 시의적절하게 재구성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학생은 이 두 가지 평가 가운데 어떤 쪽을 지지하는지 오직 하나를 선택하고,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본인의 선택을 정당화하시오. (20점)

▶ 상황 : **고전소설**의 재해석 논쟁

재해석 O → 수용자의 가치관과 시의성에 맞추어 능동적으로 해석하는 행위(수용자 중심주의적)

재해석 X → 원작자의 의도와 창작 배경을 존중하려는 것(창작자 중심주의적)

논리 Table



예시 답안

①<제시문 1>, <제시문 4>에서 알 수 있듯, 예술 작품은 그 작품을 창작한 작가의 삶과 별개로 해석할 수 없다. 작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의도와 경험 및 창작 배경 등을 고려하여, 작가가 남긴 작품 속 메시지를 찾으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②한 극단이 유명 고전소설을 파격적으로 해석하며 창작 당시의 사회상도 드러나지 않게 재구성한 것은, 작가의 창작 의도를 고려하지 않고 작위적으로 예술 작품을 해석한 것으로, 올바른 방법이라 볼 수 없다. 이러한 작위적 해석의 문제점은 ③<제시문 1>의 '니체가 사용한 초인 개념을 나치당이 악용한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고전소설을 재해석하여 공연을 하는 경우, 그 시대의 사회상과 작가의 의도를 살리는 수준에서 연극을 기획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작가의 의도와 창작 배경을 고려한 예술 작품 이해의 필요성은 문제의 <자료 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④<자료 1>에서는 이중섭의 생애와 당시의 역사적 맥락을 소개한 교육 프로그램이, 작품의 표현 기법과 창작 의도에 대한 이해도를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자료 3>에서도 사진 작가의 배경과 작품의 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작가의 메시지를 파악하고 작품이 가진 의미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 ⑤물론 <자료 2>에서는 전공에 따라 '토지'라는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보여주는 워드 클라우드를 근거로 작가 중심주의를 비판할 수 있지만, // ⑥오히려 이는 작가와 시대상에 대한 이해 없이 작품을 해석하는 경우 '토지'가 가진 고유의 의미와 주요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작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예술 작품 속 작가의 의도와 메시지를 파악해야 하며, 이러한 작가의 의도를 무시하고 원작을 파격적으로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공연은 지양되어야 한다.(914자)

How To Write

HTW①

이 예시 답안은 제시문 번호를 사용했으나, 보통은 '나는 or 창작자 중심주의는'으로 글을 시작하는 것이 관례이다.

HTW②

문제 상황에 구체화했다. 다만 '고전소설의 특징'에 대한 고찰은 부족하다. 썸이라면 '고전소설의 가치는 그 시대의 사회적 맥락과 작가 의식에 있다'라는 내용을 추가할 것 같다.

HTW③

이런 식으로 제시문의 내용을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 설명해주자.

HTW④

<자료>를 사용했다. 다만 <자료>의 내용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썸이라면 '<자료3>에서 사진 작가에 대한 이해가 작품의 의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이어졌듯, 작품에 대한 이해는 작가의 창작 의도와 배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의 방식으로 유추의 논리를 사용했을 것이다.

HTW⑤

예상 반론은 이렇게 쓰면 된다.

HTW⑥

재반론의 시작을 예상 반론에 대한 직접 반론으로 시작한다. 이렇듯 재반론은 예상 반론에 counter을 먹이는 방식으로 글을 쓰면 재반론 문단의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다.